

홀로 고블린 병사들을 막아낸 지 십여 분 쯤.

자신을 에워싼 고블린 병사들을 보며 지용은 슬슬 한계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꼈다.

‘지금까진 창의 사거리로 어떻게든 시간을 끌고 있었지만 더 이상은 무리야.’

그 사이 적이 방어밖에 하지 못하는 상태임을 파악한 고블린 병사들은 지용을 부채꼴로 둘러싼 채 서서히 거리를 좁혀오고 있었다.

불과 몇 시간 전만 해도 이깟 것들은 파리잡듯이 쓸어버릴 수 있는 힘을 가졌던 자신이 어쩌다 고블린 따위에게 죽을 위기를 맞게 된 걸까.

이 모든 게 지독한 운명의 장난 같았다.

‘처음부터 문을 열지 말았어야 했나봐.’

부모님의 이혼 이후 대기업의 임원인 아버지와 함께 살게 된 지용은 늘 혼자였다.

회사일로 바쁜 아버지마저 새벽까지 자리를 비운 허전한 집에서 외동아들인 지용은 프롬타뉴의 반지에서 만난 형누나들과 동고동락하며 깊은 외로움을 버텼었다.

그러다 보니 점점 더 이 게임 속에서 다른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존재가 되는 것이 좋아졌고 그러기 위해 더 강한 존재가 되고 싶어졌다.

허나 강해지기 위해 아버지가 준 생활비 카드를 게임에 써왔던 것이 들통난 날.

지용은 생애 처음으로 아버지에게 뺨을 맞았다.

“김지용. 너 게임중독자야? 니 친구놈들 다 새벽까지 코 피흘리며 공부할 때 넌 한다는 게 고작 이딴 게임이었냐? 이 한심한 놈의 새끼!”

그 길로 핫김에 가출을 했던 12월의 마지막 밤.

지용은 엄마와 함께 살았던 시절에 다녔던 초등학교 운동장 한 가운데서 밤하늘 높이 치솟은 탑과 조우했다.

구원의 엘라이안이 주관하는 ‘용사의 게임’에 참가하겠다는 메시지를 보며 지용은 프롬타뉴의 반지 속 세계가 더 행복했다는 생각에 고민없이 탑의 나무문을 열었다.

‘잠깐이었지만 정명이 형과 만나서 재미있었어. 길마형을 못 본 건 좀 아쉽다.’

지용이 낙담한 것을 보고 서로 눈짓을 주고받은 고블린 병사들이 동시에 장창의 사정거리 안으로 달려들었다.

지용은 창을 내질러 고블린 병사 하나를 꿰뚫었지만 이제 자신이 더 할 수 있는 게 없음을 알고 체념했다.

‘아마 처음부터 내겐 용사가 될 자질 같은 건 없었나봐.’

이렇게 허무하게 죽는 걸 보면!

창에 맞은 고블린 병사의 옆에 있던 녀석이 휘두른 나무몽둥이가 지용의 손을 내려쳤다.

묵직한 통증과 함께 손에서 놓친 장창이 바닥을 구르고, 뒤이어 사방에서 연이어 날아드는 무자비한 매질에 지용은 빠르게 피투성이가 되어갔다.

온통 붉게 물들어가는 시야를 보며 지용은 게임에서도 체력이 일정 수치 미만으로 떨어져 '죽음의 위기'상태에 진입했을 때 이런 효과가 나타나는 것을 떠올렸다.

‘엄마 미안해. 그리고 아빠도.’

결국 다리에 힘이 풀려 바닥에 드러누운 지용의 가슴을 밟고 고블린 병사 하나가 위로 올라선다.

그리곤 머리 위로 몽둥이를 높이 들어올리며 적의 처형을 알리는 괴성을 질러 댔다.

고블린 병사들의 킬킬거리는 조소만이 꺼져가는 지용의 의식을 지배하던 순간.

“지용아! 이 새끼들이!”

나무판자와 살덩이가 단숨에 베어져 갈라지는 소리가 고통으로 어질어질한 지용의 의식을 가로질렀다.

피멍이 들어 부어오른 두 눈을 겨우 뜨니 어느새 자신을 밟고 선 고블린 병사의 허리 위가 깔끔히 절단되어 사라져 있었다.

‘형?... ’

이윽고 나타난 소혜의 얼굴이 지용의 핏빛 시야를 가득 채웠다.

‘이제 보니 이 누나 좀 예쁘다.’

피멍이 잔뜩 든 얼굴을 어루만지는 소혜의 얼굴에는 걱정스러운 기색이 역력했다.

“야! 괜찮아? 정신차려봐! 대체 얼마나 맞은 거야 애는!”

말투는 좀 쌀쌀맞지만 지용은 안도감이 들었다.

자신이 고블린병사들을 상대하며 시간을 버는 동안 정명이 십장고블린 대열을 먼저 처치한다는 작전이 성공했다는 뜻이니까.

‘다행이다. 내가 해냈어.’

눈물이 맺힌 지용의 눈 앞에 시스템 창이 나타났다.

[용사후보생 김지용이 '용사의 자질: 희생(犧牲)'을 증명했습니다. 구원의 엘라이언의 권능으로 동기화이벤트가 발생합니다.]

'내가 용사의 자질을 증명했어?...'

[동기화이벤트: 희생(犧牲)]

파티의 목표달성을 위해 '죽음의 위기' 상태 1회 이상 진입 후, 목표 달성 성공.

- 성공 시: 대표 캐릭터 동기화율 1% 상승
- 실패 시: 무작위 부정 특성 1개 획득
- 본 이벤트는 소급 발생하여 '즉시완료' 됩니다.

[용사후보생 김지용 '동기화이벤트: 희생(犧牲)'성공. 대표 캐릭터의 레벨 1%와 동기화합니다.]

[용사후보생 김지용 레벨 상승! Lv.1 → Lv.2]

[용사후보생 김지용 레벨 상승! Lv.2 → Lv.3]

.....

[용사후보생 김지용 레벨 상승! Lv.7 → Lv.8]

레벨업의 효과로 체력을 모두 회복한 지용이 몸을 일으

켜 세우고 앉아 눈 앞을 가린 레벨 상승 메시지와 황금 빛 레벨 상승 이펙트를 보며 녀를 놓은 동안.

정명은 지용을 둘러싸고 있던 고블린 병사들을 고속으로 베어나갔다.

“키이이이잇!!!”

“키잇! 키이이잇!”

오리를 다루는 정명을 목도하고 아연실색한 수 십 마리의 고블린 병사들은 다시 족장 고블린이 있는 방향으로 도망치기 바빴고.

정명과 소혜는 그들을 추격하여 마지막 한 마리까지 모두 숨통을 끊어놓았다.

자신의 병사들이 적에게 무참히 썰려나가는 것을 본 족장고블린은 황급히 도망친 고블린병사들을 추스려 고블린진영이 우세한 방면으로 도망쳤다.

정명은 그 모습을 눈으로 쫓으며 완전히 승기를 잡았음을 확신했다.

‘이제 저 족장고블린만 처리하면 이번 퀘스트도 끝이다!’

다음 목표를 세운 정명은 족장 고블린이 도망친 방향을 확인한 뒤 주저앉은 지용을 일으켜 세웠다.

"너도 동기화에 성공했구나."

"네 형 덕분ですよ."

"수고했어. 이제 조금만 더하면 돼."

정명과 지용의 대화를 듣던 소혜는 둘만이 공유하는 '동기화'가 뭔지 궁금했다.

"그 동기화라는 거 대체 어떻게 하는 거예요? 방금 지용이가 레벨업 했던 데 그거랑 관련있는 거예요?"

자신만 뒤쳐지는 것 같아 본능적인 두려움을 느낀 소혜를 보며 정명은 어느 정도까지 알려주면 좋을 지 고민했다.

아직 자신도 모든 걸 다 알지 못한 상태이니 쓸데없이 많은 말을 하고 싶지 않았던 것이다.

"아까 엘라이안이 용사가 될 자격을 증명하라고 했었죠? 그게 힌트ですよ."

정명의 힌트를 듣고 무슨 말인지 알겠다는 표정이 된 소혜.

"아... 그럼 가만히 있으면 죽도 밥도 안 되겠네요. 아까 고블린 몇 마리 잡은 걸론 아무 보상도 없더라구요. 동

기화라는 걸 해야 레벨업을 할 수 있는 거 같은데.”

역시 소혜는 눈치 하난 빨랐다.

정명은 지금이 다음 목표를 달성할 계획을 말하기 적절한 타이밍이라 생각했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엔 소혜씨가 좀 고생해줘야겠어요.”

“네? 제가요? 뭔데요?”

지금까지의 전투에서 정명에게 신뢰를 갖게 된 데다 레벨업을 위해선 영웅적 면모를 보여야 한다는 점을 이해한 소혜가 더 적극적인 자세가 됐다.

“이제부터 우리는 족장고블린이 도망친 쪽을 지원할 겁니다. 거기서 저랑 지용이가 십장고블린과 병사들을 처치하는 동안 소혜씨는 족장고블린을 암살해주세요.”

지금 정명은 두 가지 생각을 갖고 있었다.

만약 소혜가 자신의 힘으로 암살에 성공한다면 앞으로도 계속 파티원으로 쓸 만할 가치가 있음을 알게 된다.

혹시나 실패하더라도 자신이 직접 처치해버리면 그만인 것이다.

그도 아니면 누군가 먼저 족장 고블린을 처치해주겠지만, 그렇게 되도록 가만히 두고 보진 않을 것이었다.

“네. 한 번 해볼게요.”

손에 든 단검을 물끄러미 쳐다보는 소혜.

각오를 다지는 듯 했다.

파티원들이 준비가 됐음을 확인한 정명은 즉각 행동에 옮기기로 했다.

“좋습니다. 그럼 이번 퀘스트를 끝내러 가보죠.”

지용과 소혜의 답변이 짧고 굵게 올랐다.

잠시 후 정명의 파티가 도착한 전장은 후보생 진영이 패퇴한 구역이었다.

곳곳에 쓰러져 누운 후보생들에게서 죽어가는 신음소리가 새어나오고 십장 셋과 병사들이 섞인 서른마리 규모의 고블린 무리가 그들을 하나하나 처형하고 있었다.

정명은 마력석으로 마력을 충전할 때 보았던 마법사 후보생의 최후를 떠올리며 어금니를 꽂물었다.

“음! 저건 대체?...”

“까아아악!!!”

허나 지용과 소혜는 고블린들의 실체를 마주하자 놀라

입을 다물지 못했다.

정명은 지용이 또한 자신만큼 게임의 세계관을 열심히 보진 않았으리라 생각했다.

그때 소혜의 비명소리를 들은 십장고블린이 쓰러진 후보생의 배를 가르다 말고 정명의 파티를 향해 시선을 돌렸다.

그리곤 칼을 돌려 크게 소리를 질러 주변 고블린 병사들에게 명령을 내렸다.

수 십의 고블린 병사들이 달려들어 오는 걸 보고 앞으로 나서려던 정명보다 한 발 앞서 지용이 전방으로 튀어나갔다.

“너희들 정도는 나 하나로도 충분해.”

첫 퀘스트가 끝나기도 전에 이미지가 180도 달라진 지용을 보며 정명은 용사의 게임이 대체 어디까지 사람을 바꾸어놓을 지 조금은 두려워졌다.

자신을 노려보는 고블린병사들 앞에 선 지용은 곧이어 적들과 자신 사이의 바닥에 창끝을 대어 부채꼴의 선을 긋고 기합을 내질렀다.

“하아아압!”

그 모습을 본 정명은 지용이 얻게 된 특성을 알아챘다.

이동을 봉인하는 대가로 자신의 사정거리 안에 들어온 적들의 공격을 모두 읽어내 반격하는 '심안(心眼)'이었다.

'아직 특성의 등급이 낮을테니 한계는 있겠지만 창기사 트리를 탈 땐 필수적인 특성이다.'

프롬타뉴의 반지에서 창을 주무기로 다루는 창기사는 주로 탱커포지션으로 기용됐다.

수 백 수 천의 군세가 몰려와도 험혈단신으로 적을 막 아세우는 인간성벽.

그것이 창기사의 육성이 극의에 달했을 때 도달할 수 있는 경지였다.

허나 지용의 그런 가능성을 알아볼 리 없는 고블린 병사들은 자신들의 수적우세만을 믿고 지용에게 달려들었다.

"키이이이잇!!"

소리를 지르며 선공을 걸어온 고블린병사 5마리가 자신들이 사실 열세임을 깨닫는 데는 그리 오랜 시간이 필요치 않았다.

창촉이 살갓을 파고드는 소리가 연이어 허공을 가르더니 나무뿔둥이를 높이 들어올린 다섯마리 고블린들이 모두 배에서 피를 쏟으며 바닥으로 엎어졌기 때문이다.

그 모습을 보며 주저하기 시작한 고블린 병사들은 정명

의 파티가 가한 역습에 추풍낙엽으로 쓸려나갔다.

순식간에 부하들이 사라지자 겁먹고 도주하던 십장고블린들마저 정명의 오리가 반으로 갈라버린 뒤.

정명의 파티는 후보생들과 고블린 진영이 치열하게 격전중인 마지막 전장으로 향했다.

이동하는 짧은 시간동안 정명은 퀘스트창을 열어 남은 생존자들의 수를 확인했다.

[시나리오 1. 콜로세움 - 협동퀘스트]

500마리의 고블린과 싸워 승리하십시오.

- 승리조건: 고블린 진영 전원 살해
- 패배조건: 후보생 진영 전원 사망

생존자 현황

- 후보생: 152/500
- 고블린: 171/500

'죽장고블린을 처치하면 뭔가 보상이 있지 않을까.'

정명의 파티가 마지막 전투가 치러지고 있는 전장의 측면에 근접했을 땐 동기화에 성공한 일부 후보생들을 필두로 후보생 진영의 반격이 진행되고 있었다.

비록 초반엔 많은 손해를 보았지만 공동의 위기상황에 직면하면 순식간에 똘똘 뭉치는 한국인들답게 어느새

적응해 일사분란하게 대응하고 있었다.

【오러발현】 특성을 얻은 후보생이 앞장서서 십장고블린들을 베어넘기고 다른 후보생들이 구심점을 잃고 도주하는 고블린 병사들을 일방적으로 학살하는 구도.

고블린 진영의 첫 공세 때 정명이 외침으로 전파했던 공략법을 이들도 착실히 수행하고 있었다.

‘다들 랭커들이라 금세 적응하는군!’

149. 108. 63.... 그리고 25마리.

전장에서 약간 거리를 둔 채 정명의 파티는 거의 줄지 않는 후보생 진영 생존자와는 달리 빠르게 줄어드는 고블린 진영의 생존자 수를 관망했다.

이제 자신의 역할을 할 때가 왔음을 느낀 소혜가 정명을 향해 말했다.

“저 족장을 암살하러 가볼게요!”

말없이 고개를 끄덕이는 정명을 뒤로하고 소혜가 떠나간 다음 정명과 지용은 고블린 진영을 향해 돌진했다.

두 사람이 도착하는 데 걸린 시간은 불과 몇 십초.

그 사이 고블린 진영의 생존자는 빠르게 줄어 족장과 십장 한 마리, 고블린 병사 십여 마리가 겨우 남아있었다.

“지용아 우린 족장만 노리자.”

“네 형.”

후보생들에게 퇴로가 막혀 패닉에 빠진 고블린 진영으로 파고든 정명과 지용.

정명이 오러를 두른 룡소드로 마지막 남은 십장 고블린을 반으로 동강낼 때 지용의 창이 족장의 가마를 짚어 진 고블린 병사 넷을 연달아 꿰뚫었다.

가마에서 떨어져 모랫바닥을 뒹구는 족장고블린에게 다가간 정명이 머리 위로 크게 들어올린 검을 아래로 내리쳤을 때.

자색의 오러와 백색의 오러가 맞부딪히는 폭음이 검의 궤적을 가로막았다.

- 콜로세움 (4), 끝 -